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3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 | | | | |
|---------|---------|----------|----------|---------|
| 미 사 성 가 | 입당 (34) | 봉헌 (342) | 성체 (180) | 파견 (16) |
|---------|---------|----------|----------|---------|

미사 전례 예절

- 성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수를 찍을 때
“이 성수로써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며 악한 생각을 없이 하소서”
하고 기도한 후 성당 안으로 들어와 제대를 향하여 경건하게 십자성호를 그으십시오.
- 제대를 향하여 가운데 통로를 통행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신자 중에도 가운데 통로로 다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중앙 통로는 사제, 수도자, 전례봉사자만 통행하여야 합니다.
제대 앞을 지나고자 할 때에는 정중히 머리 숙여 예를 갖춘 후 통과 하십시오.
- 미사 중에는 가급적 합장을 하십시오.
양손 바닥이 마주 닿게 하고 손끝의 위치는 자기 어깨 높이에 두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왼손 엄지를 누릅니다. 이때 손끝이 정면이나 바닥을 찌르듯 한 자세는 바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내 마음을 향한다는 의미로 위로 향하게 합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 날짜 | 미사해설 | 독서 | 복사 |
|------|--------|------------|------------|
| 8/5 | 이 요한 | 이바오로/김유스티나 | 박다니엘/황스테파노 |
| 8/12 | 이 그레이스 | 이요한/김헬레나 | 박다니엘/황스테파노 |
| 8/19 | 이 마틸다 | 이바오로/김유스티나 | 박다니엘/황스테파노 |
| 8/26 | 이 그레이스 | 이요한/김헬레나 | 박다니엘/황스테파노 |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 지난 주일 | 봉헌금 | 2 차 봉헌 | 교무금 |
|-------|-------|--------|-------|
| | \$195 | \$100 | \$750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8/4 |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 9/8 | 이 글라라/ 장 글라라 |
| 8/11 | 김 마론/ 김 헬레나 | 9/15 |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
| 8/18 |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 9/22 | 이 요한/ 이 마틸다 |
| 8/25 | 황 가롤로/ 손 쟈마 | 9/29 | 유 요한/ 유 마리아 |
| 9/1 | 손 아놀드/ 손 쟈마 | 10/6 |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9 월 6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9 월 9 일 오후 7 시에 있겠습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친교실 에서 모임

성경공부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8 월 19 일 미사 후 친교실 에서 소 공동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남가주 성령 쇄신 대회 참가 신청 8 월 25,26 일

이번 대회의 참가 비용 절반(50%)을 성당에서 지원합니다. 호텔 예약 등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신청: 구역장님, 재무부장님**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안내 8 월 15 일 저녁 6 시 미사

오는 8 월 15 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의무축일)로 우리 성당에서는 저녁 6 시 미사가 있습니다.

전 요아킴 신부님의 생신 축하 만찬 8 월 19 일(일) 저녁 6 시

신부님 생신 축하 겸 봉사자 저녁만찬이 히스패닉 공동체 주관으로 있습니다. 참석하시어 축하해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나에게 성호를 긋는다는 것은

-김원경 마리아 | 사이클 선수-

저는 주일, 성당에서만 성호를 그었던 신자였습니다. 평소에 성호를 긋자니 부족한 제 자신의 행실이 떠올라, 과연 자격이 있을까 하고 많이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합 때가 되면 더 주님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닌 ‘그 어떤 결과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기도와 함께 늘 시합을 하곤 했지만 성호는 긋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한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 영상은 바로 김연아 선수의 시합 영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성호를 긋고 당당히 연기를 시작하는 그 선수를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해야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늘 마음속에서만 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엔 버릇이 들지 않아서 의식적으로만 성호를 긋고 훈련과 시합에 임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놀랍게도 주님께 향한 믿음과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성호를 그을 수 있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끄러운 마음마저도 지켜봐 주셨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천천히 기다려주시다 그 김연아 선수의 영상을 우연으로 가장해 보내주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성호를 그을 자격이 없다’라는 마음은 오롯이 제 시선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불안함과 걱정이 앞섰던 시합에서 든든한 믿음으로 마음 편히 집중할 수 있었던 게 기도 되었습니다.

성호를 긋고 시합에 임한 지 어느덧 3년째가 되었을

때 입니다. 관중석에서 제 경기를 보고 계신 성함도 모르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늘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며 따스히 손을 잡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선배님, 저도 천주교 입니다”라고 속삭이듯 말하는 후배들을 보면 왠지 모를 책임감도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기도와 사랑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호를 긋고 나서부터는 나라는 사람이 이 자전거로 국가대표까지 할 수 있게 쓰인다는 것 자체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겸손을 알려주시려 그 영상을 보게 하신 건 아닐까요?

제가 김연아 선수를 보고 용기를 낸 것처럼, 말씀의 이삭을 정독하시는 많은 분께도 제 글이 용기 한방울이길 염원해 봅니다.

-서울주보 에서-

교리상식 미사 때 특별히 가져야 할 자세가 있나요?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전례헌장> 48항은 “교회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 신앙의 신비에 마치 국외자나 말 없는 구경꾼 처럼 끼어 있지 않고, 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위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인다”고 언급하면서 미사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미사 때 합장을 하거나 손을 가지런히 모아 잡은 분, 팔짱을 끼고 있는 분, 뒷짐 지고 삐딱하게 서있는 분들도 눈에 띄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있다면 어떤 몸 가짐을 할까를 생각하고 그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